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 동향: 국내 학술지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박 성 민¹⁾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김 미 진²⁾

다문화아동가족발달MJ연구소

임 정 하³⁾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본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학술지 발표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논문 총 96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논문의 발표현황,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는 2016년과 2017년을 중심으로 2010년대 후반에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주로 사회과학분야와 복합학분야에서 수행되었다. 둘째, 방법론적 측면에서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가 비슷한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경험적 연구는 주로 횡단적으로 접근한 양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질문지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문헌자료를 활용한 연구도 많았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은 신고의 무자와 부모를 포함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그쳤다. 셋째, 내용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아동학대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다루었으며, 연구내용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 제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주요어 : 아동학대, 아동학대 예방, 연구동향, 학술지논문

*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2) 다문화아동가족발달MJ연구소, 소장

3)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E-mail: jhlim@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뉴스나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었던 아동학대 사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창녕 9세 아동학대 사건,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게 되었고, 사회적인 반성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건도 빈번하게 보도되어 공적 대리양육자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부터 약 20년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규와 제도가 강화되어 왔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조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보호체계를 개편하였다. 그 일환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신설되었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에 흡수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지역사회가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발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9)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인구는 꾸준히 감소해 온 반면,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발생한다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는 각 계 각층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아동의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제는 학계와 행정기관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취해 왔던 사후 서비스적 입장을 재고하고 예방적 차원이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방적 접근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보호요인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의 발생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이 역기능적이어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할 때 그 아동은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일생동안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 특히, 아동학대는 개인의 발달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가능성이 크고, 인지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행동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ein & Monk, 2017; Okun, Parker, & Levendosky, 1994). 이들은 심리적 고통과 부정적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우

수정, 2018), 청소년기에 이르러 위험한 방식으로 음주를 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김재엽, 김준범, 장은지, 2020; 이성희, 박경애, 2021; 추경진, 최종옥, 2015). 뿐만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렀을 때,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를 가짐으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홍세은, 정지수, 2019),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학대하는 등 세대 간 전이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Malinovsky-Rummell & Hansen, 1993). 이와 같이 범죄대상의 취약성과 범죄 결과의 심각성 및 지속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특수한 예방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김형모(2002)는 2000년대 초반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접근법을 소개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예방보다 사후 대처에 집중한 나머지 아동학대의 발생비율을 낮추는데 실패하였던 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예방에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최정학(2014)도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예로 들어,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한 사후 대처의 일환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아동을 위한 사회적 돌봄서비스나 성범죄 예방 교육에 더욱 관심을 두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예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삼광(2020)은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문제가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정책이 예방보다는 사후적 조치나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잘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다. 박언하(2018)도 한국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의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적 접근보다는 사전적이며 예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2015년까지 발표된 아동학대 연구들의 동향을 살핀 논문(차미숙, 김광웅, 2017)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 관련 연구들 중 소수의 연구에서만 예방적 측면을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관련 제도, 법, 정책 등을 주제로 한 연구들의 경우, 그 내용이 아동학대 예방이나 아동의 보호보다는 학대자 처벌에 치중되어 있고, 개입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의 경우도 예방 프로그램보다는 치료 프로그램을 주로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및 교육기관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핀 논문(김영란, 도미향, 2017)에서도 학대 실태나 학대신고 및 대처 관련 연구는 많이 수행된 반면,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문적 관심 역시 예방보다는 사후 대처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가 실제의 적용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한다면, 이제 연구의 영역에서도 아동학대의 예방적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학대에 관한 학술지 논문은 1984년에 발표된 이연섭의 연구였고, 이후 2015년까지 아동학대 관련 논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차미숙, 김광웅, 2017). 따라서 2015년 이후에도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의 수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 역시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김영란, 도미향, 2017; 김잔디, 2014; 김춘경, 이주옥, 송영주, 2009; 박은미, 2019; 서우경, 2001; 송민경, 2013; 오미희, 2016; 조영숙, 2015)도 지난 20여 년간 다수 수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동향 연구들은 분석대상 범주에 장애아동 대상 연구만 포함하였거나(조영숙, 2015),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의 학대를 다룬 연구만 포함하였다(김영란, 도미향, 2017). 즉 아동학대를 하위의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각 항목에 포함된 연구들만을 선정해 그 경향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본 경우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아동학대 예방이란 아동학대라는 용어와 예방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예방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말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9).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이란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방임 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yan(2005)은 아동학대와 폭력은 얼마든지 예측과 예방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내적 변화, 대인 간 관계의 변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Cohn Donnelly(1991)도 아동학대 예방 전략을 세울 때,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아동학대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완화하는 노력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미국아동학대예방위원회(U.S. Advisory Board on Child Abuse and Neglect)는 아동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 및 가족의 삶과 관련된 모든 환경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역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건, 교육, 법률, 지역사회 등 아동 생활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관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예방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개발, 수정,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연구(김형모, 2002; Admon Livny & Katz, 2018)는 국내외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는 아동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이란 아동학대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모든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예방의 범위를 가족이나 학

교처럼 아동과 가장 가깝고 밀접하여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환경으로부터, 사회복지서비스, 대중매체, 법, 제도와 같이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으나 아동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위수준의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논문들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논문으로 보고 그 중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발표현황, 방법론적 경향 및 내용적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최근 5년간 수행된 연구들도 포함하므로 아동학대 연구에 관한 보다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예방의 측면에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발표현황, 방법론적 경향 및 내용적 경향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어떠한 현황과 경향을 보이는지 파악한 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살펴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의 발표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최근 국내 연구의 내용적 경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국내 학술지 연구 논문 96편이다. 이들 논문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전자도서관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집되었다. 각 데이터 베이스에서 논문 발행연도를 지정하지 않고, ‘아동학대’와 ‘예방’이라는 검색어를 조합하여 원문자료가 있는 국내 학술지 논문을 검색한 결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총 124편이, 국회전자도서관에서는 총 74편이 나타났다. 이렇게 검색된 논문 중 논문의 제목, 저자, 출판연도, 발행기관명을 바탕으로 중복된 논문 58편과 학술지에 발표된 것이 아닌 자료들 44편을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정기간행물 기사 22편, 학술대회 발표자료 16편, 세미나 발표자료 2편, 연구보고서 3편, 학회 부록 자료 1편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198편에서 이들 102편을 제외하고, 최종 96편의 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2. 분석절차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3인의 연구자들이 분석에 참여하였다. 분석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먼저 논문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2인의 아동학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두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쳐 분석틀의 타당성을 확인받았다. 분석틀을 이용해 분석자 훈련

을 한 후, 분석대상에 해당하는 전체 논문 96편 중 약 20%에 해당하는 20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평정자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런 후, 평정결과의 일치율은 97%로 나타났다. 이때, 불일치 항목에 대한 토의과정을 통해 분석자 훈련과정을 재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본 단계에 이르러 나머지 논문 76편을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연구자들 사이에 분석결과가 일치한 항목은 결과 그대로 확정하고, 불일치 항목은 공동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분석범주를 확정하였다.

3. 분석기준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논문의 발표 현황,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발표 분석기준

연구의 발표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 발표 시기와 연구가 수행된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발표시기를 연도별로 빈도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관련법들의 제정 및 개정 시기에 따라 논문들의 발표시기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된 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학술지인용색인의 분류기준에 따라 인문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공학분야, 의학학분야, 농수해양학분야, 예술체육학분야, 복합학, 기타분야의 총 9개 분

야로 구분하여 1차 분석하고, 2차로 각 연구분야의 세부분야를 확인하였다. 이때, 분석대상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기타학술지에 발표된 경우는 학술지의 연구분야가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기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방법 분석기준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들이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였고, 수집된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 이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덧붙여 연구접근법을 파악하기 위해 횡단적 접근법과 종단적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자료수집방법을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자료와 기타항목을 포함해 총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빈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대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에서는 논문이 어떤 특정 대상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경험적 연구에서는 자료제공자 또는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후, 이를 아동, 성인, 공동체, 기타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라 학령전 영유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아동,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구분하였고, 성인은 아동학대 예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모, 신고의무자,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표 1. 분석틀

	발표연도		1989년-2020년
	연구분야		인문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 사회과학분야 공학분야 의약학분야 농수해양학분야 예술체육학분야 복합학분야 기타
	이론적 연구		
	연구유형	경험적 연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자료수집방법		횡단적 접근법 종단적 접근법
	방법론적 경향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실험법 문헌자료 기타
	연구대상		영유아 아동 청소년
			부모 신고외무자 일반인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기타
	예방 대상 학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구분 없음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 일반가정 특수가정
			기관에서의 학대 예방 보육시설 교육기관
			아동 대상 프로그램 부모 대상 프로그램 교사 대상 프로그램 - 예비교사 대상 - 현직교사 대상 기타
	연구내용		아동학대 예방 홍보 인쇄매체홍보 영상매체홍보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및 제도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 기타국가들
			기타

분석하였다. 이 때 신고의무자는 올해 일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의 24개 직군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기 전 발표된 연구의 대상이 현재를 기준으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예비신고의무자의 경우 모두 신고의무자 항목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 중 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국가로 구분하였다. 이들 역시, 일부 논문에서 둘 이상의 분석범주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경우가 있었으므로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빈도를 산출하였다.

연구내용 분석기준

연구의 내용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논문에서 다룬 아동학대 유형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예방하고자 하는 아동학대 유형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학대 유형에 뚜렷한 구분이 없는 연구일 경우, 구분없음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연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환경의 근접한 정도에 따라 분류항목을 구분하였다. 먼저 가정에서의 학대예방, 기관에서의 학대예방,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제도, 국외사례 비교연구,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에서의 학대예방을 다룬 경우, 가정의 특성에 따라 일반가정과 특수가정으로 구분하였고, 기관에서의 학대예방을 다룬 경우, 기관의 유형에 따라 보육시설과 교육기관으로 구분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다룬 경우,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 대상인지, 부모 또는 교사 대상인지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다룬 경우, 매체의 종류에 따라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국외사례를 비교하여 연구를 수행한 경우도, 비교 국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일부 논문에서 둘 이상의 연구주제를 다룬 경우가 있었으므로 중복측정하여 다중반응빈도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발표현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발표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는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총 96편의 연구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1989년에 처음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기초연구를 수행한 논문(천희영, 1989)이었다. 이후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는 2000년까지 2, 3년에 한 편 정도씩 발표되다가 2002년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2004년에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다시 감소하였다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2편씩 가장 많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총 48편(50%)으로 전체 논문의 절반이 최근 5년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체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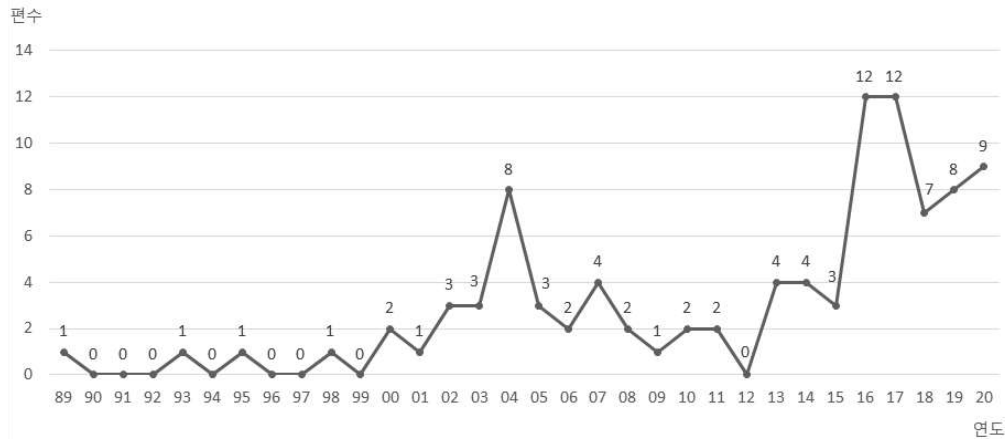


그림 1.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연도별 발표 편수 (N = 96)

편의 논문 중 58편(60.4%)이 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되었고, 11편(11.5%)이 복합학분야에서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인문과학분야에서 6편(6.3%), 의학학분야에서 4편(4.2%), 자연과학분야에서 3편(3.1%), 예술체육학분야에서 3편(3.1%)이 연구되었고, 공학이나 농수해양학분야에서는 한 편도 연구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사회과학분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학분야에서 25편, 교육학분야에서 11편, 법학분야에서 9편의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외에도 행정학(김우태, 2017), 정책학(정윤수, 이정희, 2003), 신문방송학분야(홍문기, 박혜영, 2018)에서도 연구가 한 두 편씩 수행되었다.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은 복합학분야 중 학제간 연구분야에서, 인문과학분야 중 기타인문학분야에서, 의학학분야 중 간호학분야에서, 자연과학분야 중 생활과학분야에서, 예술체육학분야 중 디자인분야에서 주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방법론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유형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는 각각 50편(52.1%)과 46편(47.9%)으로 그 비율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경험적 자료를 중심으로 수행된 46편의 연구는 양적 연구 40편, 질적 연구 6편으로 나타나 양적 연구의 수가 훨씬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는 최초 발표 시점인 1989년 이래 계속 비슷한 비율로 수행되어 오다가, 2019년 이후에 경험적 연구는 13편, 이론적 연구는 4편으로 경험적 연구가 이론적 연구에 비해 세 배 이

표 2. 발표시기별 연구유형 빈도 분포

(N = 96)

연구유형		1990년 이전	1991-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합계 (%)
이론적 연구		1	4	14	31	50 (52.1)
경험적 연구	양적 연구	0	1	14	25	40 (41.7)
	질적 연구	0	0	1	5	6 (6.3)
전체		1	5	29	61	96 (100.0)

상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질적으로 수행된 연구 6편 중 2편은 2007년과 2016년에 각각 한 차례씩 수행되었고, 나머지 4편의 연구는 가장 최근인 2020년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덧붙여 연구접근법을 살펴보면, 경험적 연구에 해당하는 46편의 논문은 모두 횡단적 접근법으로 수행되었고, 종단적 접근법으로 수행된 연구는 한 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방법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들 중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수행한 46편 연구들의 자료수집방법을 살펴본 결과, 34편(73.9%)의 논문에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12편(26.1%)의 논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논문이 31편(6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된 연구가 13편(28.3%)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면접법과 실험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논문은 각각 5편(10.9%)이었고, 관찰법을 활용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12편의 연구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험법과 질문지법을 함께 사용한 경우가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문헌

자료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활용한 경우도 각각 3편씩 있었다.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연구들의 발표연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대상을 크게 아동, 성인, 공동체, 기타로 구분하였다. 이들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42편(41.6%)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5편(5.0%)에 그쳤다. 또한 국가와 지역사회 등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는 23편(22.8%)으로 나타났으며,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연구는 총 31편(30.7%)이었다.

연구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중반응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경우, 영유아 대상 연구는 2편, 초등학교 아동 대상 연구는 3편이었으며, 청소년 대상 연구는 한 편도 없었다. 영유아 대상 연구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들이 그들의 부모 및 교사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이호균, 장화정, 유선영, 2001), 미취학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표 3. 발표시기별 연구대상 빈도 분포(중복측정)

연구대상		1990년 이전	1991-2000년	2001-2010년	2011-2020년	계 (%)
아동	영유아	0	0	1	1	2 (1.9)
	아동	0	2	1	0	3 (2.9)
	청소년	0	0	0	0	0 (0.0)
성인	부모	0	1	6	9	16 (15.4)
	신고의무자	0	0	8	15	23 (22.1)
	일반인	0	0	0	3	3 (2.9)
공동체	지역사회	0	0	2	2	4 (3.9)
	국가	0	2	7	13	22 (21.1)
기타		1	2	9	19	31 (29.8)
합계		1	7	34	62	104 (100.0)

관련법과 제도를 고찰한 연구(선은애, 2016)가 포함되었다. 아동 대상 연구에는 초등학교 5학년생(고주애, 백선옥, 2006), 3학년생과 6학년생(이미경, 이재연, 1998)이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포함되었다.

성인 대상 연구에는 신고의무자 대상 연구가 23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순으로는 부모 대상 연구가 16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강신용, 2016; 이유석, 서구원, 2019; 홍문기, 박혜영, 2018)이었다. 신고의무자 대상 연구 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8편,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7편, 예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5편이었으며, 그 밖에 유치원 교직원(이호균 등, 2001),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고미옥, 고선옥, 2017) 대상 연구도 포함되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들 중에서는 상담원(강은숙, 김민정, 2006; 공계순, 2005a; 공계순, 2005b; 김성희, 이재연, 2005; 윤혜미,

박병금, 2004)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았으며 이들 대상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중반에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이론적 연구에 해당하였다. 공동체 대상 연구를 지역사회와 국가 대상 연구로 구분하여 연도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각각 2편씩, 총 4편이 발표되었다. 지역사회 대상 연구에는 경남지역의 예방사업을 위한 방안(김고은, 이희민, 2013), 향후 예방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김형모, 2003), 지역사회 자원들의 역할(김형모, 2008),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근린지역접근방식을 소개(변보기, 2017)한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공동체 대상 연구 중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총 21편이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률,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인 정책, 사회구조체계인 제도 등이 함께 다루어진 경

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기타항목에는 주로 문헌이 포함되었으며(예: 이연규, 김가은, 2019), 그 외에도 공익광고(이유석, 서구원, 2019), 포스터(변현진, 2018), 판례(윤기혁, 2017), 예방 프로그램(이재연, 윤선화, 2004) 등이 포함되었다.

3.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내용적 경향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의 내용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연구에서 아동학대 예방에서 중점을 둔 학대의 유형과 주된 연구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방 대상 학대 유형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국내 연구들에서 나타난 아동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96편의 논문 중 90편은 아동학대 유형을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편의 논문 중 2편의 논문에서는 정서적 학대 예방(김미숙, 2017; 윤기혁, 2017)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으며, 2편에서는 성적 학대 예방(김오남, 2004; 이미경, 이재연, 1998)만을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1편의 논문에서는 방임 예방(이병록, 정선희, 2019)을 다루었고, 1편의 논문에서는 두 가지 유형인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예방에 대해 다루었다(조영숙, 이현수, 2011). 예방 대상으로 다루어진 학대 유형을 연구의 시기별로 살펴보면, 성적 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정서적 학대 예방과 방임

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 후반에 이르러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의 내용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각 연구에서 다룬 환경의 수준을 아동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근접 환경에서부터 보다 상위수준의 사회·문화적 환경까지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즉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 기관에서의 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및 제도, 국외사례 비교연구, 기타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다루어진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것으로 전체 96편의 논문 중 34편(26.0%)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그 다음 순으로 많이 다루어진 연구 내용은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31편(23.7%)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와 기관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는 각각 전체 논문의 약 11%를 차지하여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 등 외국의 정책이나 제도, 예방 프로그램, 예방 사례 등을 고찰하여 국내에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도 14편(10.7%)이었다. 그 밖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다룬 연구는 총 4편(3.1%)이었다. 연구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중반응빈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 범주에는 가정 내에서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예방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때

표 4. 발표시기별 연구내용 빈도 분포(중복측정)

구분		1990년 이전	1991- 2000년	2001- 2010년	2011- 2020년	계 (%)	
가정에서의 학대예방	일반가정	0	1	1	5	7 (5.0)	
	특수가정	0	0	1	7	8 (5.7)	
기관에서의 학대예방	보육시설	0	0	0	10	10 (7.1)	
	교육기관	0	0	2	3	5 (3.5)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아동대상	0	1	4	0	5 (3.5)	
	부모대상	1	0	8	13	22 (15.6)	
	교사대상	예비교사	0	0	0	4	4 (2.8)
		현직교사	0	0	2	1	3 (2.1)
		기타	0	1	0	1	2 (1.4)
	아동학대 예방홍보	인쇄매체홍보	0	0	0	1	1 (0.7)
영상매체홍보	0	0	1	2	3 (2.1)		
아동학대예방 정책 및 제도		0	3	11	20	34 (24.1)	
국외사례 비교연구	미국	0	1	0	8	9 (6.4)	
	일본	0	0	0	5	5 (3.5)	
	유럽국가	0	0	0	2	2 (1.4)	
	기타국가	0	1	0	1	2 (1.4)	
기타		0	0	8	11	19 (13.5)	
합계		1	8	38	94	141 (100.0)	

가정의 유형을 일반가정과 특수가정으로 구분하였는데, 특수가정에는 다문화가정(박명숙, 이재경, 2016), 미혼모가정(박일태, 오원옥, 2020), 장애아 자녀를 둔 가정(안혜영, 2004) 등이 포함되었다. 일반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와 특수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는 각각 7편과 8편으로, 둘 사이의 연구 수행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일반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들에는 다세대적 치료접근을 통해 가족구성원

의 역할을 모색한 연구(박태수, 2004), 미국의 가정방문지원 프로그램인 Healthy Families America를 바탕으로 한 국내 가정방문지원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오향숙, 2017),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영향력을 검증한 연구(이병록, 정선희, 2019)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부모교육의 강화, 신고의무자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연구(김미숙,

2017)도 있었다. 다음으로 특수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장애아 부모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박명숙, 이재경, 2016; 안혜영, 2004)과 미혼모의 극복력 증진 영역을 개발한 연구(박일태, 오원옥, 2020), 장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행된 기초연구(조영숙, 2016) 등이 포함되었다.

둘째, 기관에서의 학대 예방 범주에는 보육시설 또는 교육기관에서 시설 및 기관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예방 방안을 다룬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이들 연구를 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가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육시설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최근 6년간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에는 어린이집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을 다룬 연구(이용주, 2020)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와 예방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신용숙, 문영희, 2018),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이나 학대피해경험과 학대의 심각성 인식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이미선, 김하나, 2015), 아동학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영상감시시스템을 제안한 연구(김우태, 2017) 등이 포함되었다. 교육기관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학교의 역할을 다룬 연구(김유리, 2010)와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조사 지표를 개발한 연구(강정민, 강석진, 2020) 등이 포함되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에는 부모대상 프로그램이 2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대상 프로그램과 아동대상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대상 예방 프로그램 항목에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천희영, 1989), 부모의 인성역량 강화 및 인성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김봉제, 권기남, 2018; 도미향, 2016), 가정방문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연구(박현정, 김현경, 2017), 아동학대행위자의 부모교육 경험을 기술한 연구(이주희, 이선화, 2020), 학대예방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실태와 요구도,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을 다룬 연구(김오남, 2004) 등이 포함되었다. 교사대상 예방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우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예비교사대상 프로그램은 모두 최근 5년 사이에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대상 예방 프로그램 항목에는 교사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된 기초연구(김영은, 이희선, 2016a)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다룬 연구(김영은, 이희선, 2016b; 윤영배, 유준호, 2017) 등이 포함되었다. 아동대상 예방 프로그램 항목에는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미경, 이재연, 1998), 비밀친구 1391(고주애, 백선옥, 2006), 아동힘키우기서비스(Child Empowering Service: CES)(이호균 등, 2001)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포함되었다. 아동대상 예방 프로그램 연구는 최근 10년간 한 번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다룬 연구들에는 TV 공익광고와 같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3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졌고, 범죄예방 포스터와 같은 인쇄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1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영상매체를 통한 학대 예방 홍보를 다룬 연구들에는 공익광고의 내용이나 표현을 분석한 연구(강신용, 2016; 이정현, 이영희, 2007), 공익광고 메시지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유석, 서구원, 2019)들이 포함되었다. 인쇄매체를 통한 학대 예방 홍보를 다룬 연구(변현진, 2018)는 범죄예방 포스터를 대상으로 이미지와 시각적 수사를 분석한 것이었다.

다섯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다룬 연구들은 그 밖의 내용을 다룬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매시기마다 높은 비율로 수행되었다. 이들은 주로 이론적 연구에 해당하였으며, 현행 법제를 정리하여 소개하거나 법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각 연구에 제시된 개선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먼저 1990년대에는 아동학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의 제정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내용, 신고제도와 지역사회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다루어졌다(이배근, 1993; 이배근, 1995). 2000년대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독립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정채옥, 2007), 사법, 의료, 교육, 행정,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정운수, 이정희, 2003),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의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내용(김형모, 2008) 등이 다루어졌다. 2010년대에

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미취학 아동의 학대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선은애, 2016),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안 처분을 강화해야 하며 처벌과 예방이 균형을 이루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예방조치 강화하며 피해아동보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김화미, 2017), 예방 및 보호 측면의 강화를 위해 특례법 명칭을 변경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김두상, 2018) 등이 다루어졌다.

여섯째, 우리나라와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다룬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프랑스와 스웨덴, 대만을 살핀 연구도 한 편씩 있었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최초로 국외의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는 이배근(1995)의 연구로, 대만의 아동학대 프로그램과 예방체계를 소개한 것이었다. 그 외에 대부분의 국외 사례 비교 연구는 2010년대에 활발히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개국의 사례를 비교 연구한 김효선과 이경재(2013)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이고 신고체제가 의무화되어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선정하여 각국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박언하(2018)는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 선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로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을 선정하여 각국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밖에 미국 뉴욕의 사회복지기관 아동학대 예방 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분석한 연구(원혜연, 임윤령, 2020)도 있었다.

일곱째, 기타항목으로 분류된 연구내용으로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강은숙, 김민정, 2006), 소진(공계순, 2005a; 윤혜미, 박병금, 2004), 이직의도(공계순, 2005b), 신변안전인식(김성희, 이재연, 2005)을 다룬 연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인식과 신고지식을 다룬 연구(김수인, 강지연, 2017)와 학대예방센터의 업무수행지침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노인학대 사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정은미, 2007)도 기타항목에 포함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들의 발표현황과 방법론적, 내용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발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연구는 아동학대 연구의 최초 발표 시점인 1984년으로부터 5년이 지난 1989년도에 처음 발표되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총 96편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논문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을 중심으로 2010년대 후반에 그 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을 살핀 몇몇 선행 연구들(김영란, 도미향,

2017; 차미숙, 김광웅, 2017)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연구는 공통적으로 2014년 전후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2014년에 연구가 급증한 현상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자 했던 사회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2014년에 눈에 띄는 증가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그로부터 약 2~3년 후인 2016년과 2017년에 연구의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 연구의 최초 발표 시점과 연구들이 급증했던 시기의 패턴을 살펴보면 학계에서의 아동학대의 예방적 측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뒤늦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발생 후 개입도 중요하지만, 일정 정도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무엇보다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과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분야 중 사회복지학분야와 교육학분야, 법학분야에서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합학분야의 학제간 연구분야에서도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주제가 여러 분야의 협력을 통해 연구할 수 있는 주제임을 시사한다. 특히 복합학분야에서 연구된 11편의 논문 중 10편이 최근 5년

사이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최근 들어 아동학대 예방 연구에 대해 다학제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표갑수(1993)는 아동학대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대처방안 역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치료적, 예방적 측면에서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예방적 측면에서는 상담, 교육, 사회문화적 요인인 빈곤, 실직률 등의 완화, 아동학대 관련 교과목 편성 등을 통해 다양한 측면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다학제적 접근이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가 향후에도 이어져,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 분야에서의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방법론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예방 연구들은 이론적 연구와 경험적 연구가 비슷한 비율로 수행되었으며 경험적 연구는 주로 횡단적으로 접근한 양적 연구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경험적 연구는 주로 질문지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거나 문헌 자료를 수집하여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면접법, 실험법, 관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논문은 소수에 그치거나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시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에 이르러 경험적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연구가 조금씩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배경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때로는 양적인 수치로 판단이 불가능한 요인이나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질적 접근 방법은 해당 현상이 나타나기 전의 여러 특성이 무엇이고, 발생 당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며, 사건 이후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해 사건의 전후를 포괄하는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므로, 질적 연구의 시도는 현상을 이해하고 아동학대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동학대라는 주제가 감추거나 회피하고 싶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를 배려할 수 있는 보다 자연스러운 세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수를 대상으로 깊이 있게 연구를 수행한다면, 아동학대의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예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나 질적 접근방식을 포함한 혼합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종단적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는 한편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분석(차미숙, 김광웅, 2017)에서 나온 종단연구의 비율(26%)과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는 학대가 발생한 시기 뿐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Schmeck, 2020; Teicher & Samson, 2016),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했던 연구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학대 예방 프로그램, 관련법, 제도 및 정책 역시 시행 직후의 단기적 효과를 측정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재측정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종단적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던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에 그쳤다. 특히 정

소년 대상 연구는 한편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보건복지부(2019)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 연령은 만 13세에서 15세 청소년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몇몇 연구(박희경, 손환희, 2019; Stewart, Livingstone, & Dennison, 2008)에서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 즉 청소년기로의 전환 시기에 학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 학대가 증가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청소년은 영유아와 아동에 비해 사회적 인지 및 언어능력이 발달하여 자신의 내적, 외적 상태에 대해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유용하고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성인기에 진입하기 전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는다면, 이들이 추후 성인이 되었을 때 아동학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이 성장해서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 간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과 연구는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 아동과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등 좀 더 세심하게 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 중 성인 대상 연구에는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대상

연구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는 아동학대예방센터 종사자 대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고, 2010년대 후반에는 보육교직원이나 예비신고의무자 대상 연구가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신고의무자에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보육, 유아교육 전공의 대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최근 5년 사이에 보육교직원이나 예비신고의무자 대상 연구가 많이 수행된 것은 2014년에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고의무자의 범위에는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뿐 아니라,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의료기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소방구급대원, 응급구조사 등 24개의 직군이 포함되므로, 보다 다양한 직군의 신고의무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부모 대상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는 아동학대 발생 시 파악된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꾸준히 높게 나타난 현상과 관련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45%, 30대가 26.5%, 50대가 16%로 보고된 바 있는데, 주로 초등학교이나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연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른 발달특성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돕는 내용의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세 편에 그쳤던 일반인 대상 연구는 보다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연규와 김가은(2019)이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대경험이 있는 양육자에게는 예방 교육의 효과가 없었던 반면, 학대 경험이 없는 양육자에게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인 대상 예방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세계적인 경향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2020).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예방 프로그램을 분류할 때 예방의 목적, 주요 대상 및 서비스 전달의 시기에 따라 1차, 2차, 3차 예방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윤혜미, 2003). 1차 예방은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정과 건강 및 복지를 지원하고 일반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차 예방은 아동학대와 방임의 위험요인이 많은 고위험집단을 선별하여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아동학대로의 발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3차는 이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 및 재발 방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직장인, 예비 부모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대상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연구들이 보다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의 내용적 측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하위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그 유형에 따라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이 다르므로(박현숙, 2008), 각 유형에 따라 예방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2019)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형별로 피해 아동의 성별, 연령,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사례에서 피해 아동은 남아가 많았고, 성학대 사례에서는 여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모든 연령대에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비율이 높았지만, 1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임의 비율이 높았다. 성학대를 제외한 학대 유형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지만, 성학대의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대리양육자인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예방책을 세우기 위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임의 경우는 아동학대 유형 중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생명에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경우 그 원인이 신체학대 및 방임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빈곤, 부모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고, 아동에 대한 무관심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기 쉬운 만큼(보건복지부, 2012) 학대의 한 유형인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방 정책 및 제도, 예방 프로그램이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시기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수행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에 관

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된 2000년 1월의 아동 복지법 개정 시기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연구내용 역시 그 변화가 눈에 띄었다. 먼저 1990년대에는 아동학대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들이 수행되었고, 2000년대에는 제정된 법률적 기초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체계가 통합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들이, 2010년대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적 측면과 예방적 측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내용들은 우리나라의 학대 예방 관련 정책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했다고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와 빈곤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Jones & McCurdy, 1992; Slack, Holl, McDaniel, Yoo, & Bolger, 2004)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빈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외에서는 아동학대와 부모의 취업 및 실업 상태, 지역사회의 빈곤, 빈곤한 가정의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접근 등을 살핀 연구들(Cherry & Wang, 2016; Drake & Pandey, 1996; Fong, 2017)이 수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정책과 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한다.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들 중,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2000년대부터 꾸준히 수행되었으나 교사 대상 프로그램 중 예비교사 대상 프로그램은 최근 5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예비교사 대상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인성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이들은 가까운 미래에 보육교직원이나 유치원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될 확률이 높으므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필요가 있겠다.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정황을 의심하거나 발견하여 신고할 때에는 이미 학대가 발생한 후이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예비신고의무자들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 대상 예방프로그램을 주제로 한 연구는 최근 10년간 한 편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과 책임을 아동에게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주애와 백선옥(2006)의 주장처럼 아동 스스로가 아동의 권리와 학대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학대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은 예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가정에서의 학대 예방을 다룬 연구의 경우, 일반가정 대상 연구와 특수가정 대상 연구는 비슷한 비율로 수행되었다. 특히 장애아 자녀를 둔 가족, 한부모가족 및 재혼가족 등은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Hershkowitz, Lamb, & Horowitz, 2007; Turner, Finkelhor, & Ormrod, 2007), 이들 가족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학대 예방 연구들이 보다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에서의 예방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의 예방을 다룬 연구가 교육기관에서의 예방을 다룬 연구보다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2019)의 아동학대 통계에 따르면, 대리양육자 중 초, 중, 고교 직원으로부터의 아동학대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기와

학령기에 발생하는 학대는 그 유형과 발견 및 신고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아동의 발달수준과 아동학대 발생 현황 등을 바탕으로 보육시설과 더불어 교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연구 역시 꾸준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꾸준히 수행되어야 하며, 다학제적 접근이 시도되는 최근의 연구 경향에 따라, 여러 연구 분야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정책과 제도, 예방 프로그램들의 정확한 실효성 평가를 위해 종단적 접근법을 활용한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아동과 청소년, 다양한 직군의 신고의무자, 학대 경험이 없는 일반인까지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이들로부터 아동학대 예방안 마련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전문적인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아동학대 현황을 바탕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수준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화적 환경들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학위논문이나 기타 학술기사 등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모든 연구를 포함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또한 검색어를 ‘아동학대’와 ‘예방’으로 조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기에, 아

동학대 예방을 다루었지만 해당 검색어의 조합으로 검색되지 않은 논문은 연구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연구들의 경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발표현황, 방법론적, 내용적 경향을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다루는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강신용 (2016). 아동학대 예방 TV공익광고 내용분석 - 2010년에서 2014년까지의 공익광고를 중심으로 -.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17 (47), 29-38.
- 강은숙, 김민정 (2006).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직무스트레스 실태 및 이직고려와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1(2), 43-63.
- 강정민, 강석진 (2020).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환경조사 지표 연구. 한국셀테드학회지, 11(3), 157-188.
<https://doi.org/10.26470/jcssed.2020.11.3.157>
- 고미옥, 고선옥 (2017). 아동학대예방 관련 지역사회협력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요구 분석.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5), 633-642.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5.87>
- 고주애, 백선옥 (2006). 아동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 「비밀친구, 1391」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 춘천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

- 으로 -. 동광, 102, 170-199.
- 공계순 (2005a).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3), 83-103.
- 공계순 (2005b).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이직의도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9, 7-35.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김고은, 이희민 (2013).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정책포커스*, 1-65.
- 김두상 (2018).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6(2), 25-49. <https://doi.org/10.35223/gnulaw.26.2.2>
- 김미숙 (2017).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가정 내 정서 학대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정보연구*, 3(2), 1-24.
- 김봉제, 권기남 (201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인성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8(4), 109-121. <https://doi.org/10.21213/kjcec.2018.18.4.109>
- 김성희, 이재연 (2005).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들의 신변안전에 대한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9(3), 375-391.
- 김수인, 강지연 (2017).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예비신고의무자의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대 인식이 신고지식의 매개 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373-400. <https://doi.org/10.17997/swry.55.1.13>
- 김영란, 도미향 (2017). 보육·교육기관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2001-2016 국내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 105, 105-128.
- 김영은, 이희선 (2016a).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의 인성교육 기초연구. *인지발달중재학회지*, 7(1), 15-32.
- 김영은, 이희선 (2016b).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육아정책연구*, 10(1), 49-72.
- 김오남 (2004). 부모의 아동성학대 예방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73-84.
- 김우태 (2017).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 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한국경찰연구*, 16(3), 47-68. <https://doi.org/10.38084/2017.16.3.3>
- 김유리 (2010).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학교의 예방적 역할. *특수교육*, 9(3), 711-89. <https://doi.org/10.18541/ser.2010.10.9.3.71>
- 김잔디 (2014). 일본의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와 동향. *서울법학*, 22(2), 475-501. <https://doi.org/10.15821/slr.2014.22.2.014>
- 김재엽, 김준범, 장은지 (2020). 청소년의 아동학대 경험이 위험음주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5), 119-145. <https://doi.org/10.21509/kjys.2020.05.27.5.119>
- 김춘경, 이주옥, 송영주 (2009). 국내 신문기사 및 연구논문을 통해 본 아동학대 동향 연구. *놀이치료연구*, 13(3), 83-97.
- 김형모 (200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체적인 접근. *한국사회복지논총*, 7, 109-126.
- 김형모 (2003). 한국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향후 과제. *아동권리연구*, 7(3), 1-28.
- 김형모 (2008).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피학대 아동 발견 및 사후

-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5(2), 21-40.
- 김화미 (2017).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대책 방안. *아동보호연구*, 2(2), 67-94.
- 김효선, 이경제 (2013). 아동학대 유형별 재발 생 위험요인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4(1), 159-182.
- 도미향 (201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인 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 *코칭연구*, 9(2), 81-102.
- 박명숙, 이재경 (2016).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117-131.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117>
- 박언하 (2018). 한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방안: 외국의 아동학대예방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 *복지상담교육연구*, 7(1), 331-354.
<https://doi.org/10.20497/jwce.2018.7.1.331>
- 박은미 (2019).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의 아동학대 연구동향 분석: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세미나 자료집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연구*, 4(2), 105-132.
- 박일태, 오원옥 (2020). 양육 미혼모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극복력 증진 영역 개발. *동서간호학연구지*, 26(2), 109-117.
<https://doi.org/10.14370/jewnr.2020.26.2.109>
- 박태수 (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학생생활연구*, 25(1), 1-26.
- 박현숙 (2008).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에 미치는 경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김현경 (2017).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가정방문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3(4), 479-493.
<https://doi.org/10.4094/chnr.2017.23.4.479>
- 박희경, 손환희 (2019). 아동청소년의 부모 학대와 방임, 삶의 만족도 및 학교생활 적응의 발달단계 유형과 대응성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1183-1213.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3.1183>
- 변보기 (2017).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체계구축에서 근린지역기반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1), 327-341.
<https://doi.org/10.14257/ajmahs.2017.01.09>
- 변현진 (2018). 범죄예방 포스터에 나타난 이미지의 특성과 시각적 수사 접근 연구: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를 중심으로.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55, 261-277.
<https://doi.org/10.18555/kicpd.2018.55.24>
- 보건복지부. (2012). 영아방임에 관한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19).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 서우경 (2001). 국내 · 외 아동학대 연구동향의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3(1), 41-77.
- 서윤주, 박선태, 원유나 (2020). 청소년의 아동기 학대 경험이 데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 허용도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5), 951-962.

- <https://doi.org/10.22143/hss21.11.5.69>
 선은애 (2016). 아동복지법상 미취학아동의 학대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76, 261-281.
- 송민경 (2013).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5), 213-234.
- 신용숙, 문영희 (2018).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과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인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보호연구*, 3(2), 55-87.
- 안혜영 (2004). 장애아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효과분석.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5), 663-672.
<https://doi.org/10.4040/jkan.2004.34.5.663>
- 오미희 (2016). 한국과 일본의 아동학대 연구 동향: 법·제도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69, 295-314.
<https://doi.org/10.18631/jalali.2016..69.016>
- 오삼광 (2020).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 제도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91, 341-356. <https://doi.org/10.30933/kpllr.2020.91.341>
- 오향숙 (2017). 아동학대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가정방문지원: 미국의 Healthy Families America(HFA)의 가정방문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0(2), 53-87.
<https://doi.org/10.35930/kjpr.30.2.3>
- 우수정 (2018).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인터넷 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 771-786.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2.771>
- 원혜연, 임윤령 (2020). 미국 뉴욕의 아동학대 예방체계 사례관리 고찰: 한국아동학대에 방체계 사례관리 개선에 갖는 함의. *아동과 권리*, 24(3), 489-514.
<https://doi.org/10.21459/kccr.2020.24.3.489>
- 윤기혁 (2017). 국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판례 분석 연구: 정서적 학대 유형, 쟁점사안 및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융합정보논문지*, 7(5), 157-167.
<https://doi.org/10.22156/cs4smb.2017.7.5.157>
- 윤영배, 유준호 (201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학대인식, 인성,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26(4), 277-303.
<https://doi.org/10.17643/kjce.2017.26.4.15>
- 윤혜미 (2003).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센터 활동분석과 아동보호서비스 개선을 위한 논의. *한국아동복지학*, 15, 7-38.
- 윤혜미, 박병금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상담원의 소진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279-301.
- 이미경, 이재연 (1998).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이 아동의 성학대 위험 지각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19(1), 193-209.
- 이미선, 김한나 (2015). 보육교사의 아동기 시절 가정폭력경험과 학대피해경험이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대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2), 309-333.
- 이배근 (1993).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광*, 90, 35-75.
- 이배근 (1995).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사업. *한국아동복지학*, 3, 127-167.
- 이병록, 정선희 (2019). 사회적 지지와 학부모의 아동방임 인식 사이의 관계에서 아동

- 학대예방 교육의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 연구, 17(6), 447-455.
<https://doi.org/10.14400/JDC.2019.17.6.447>
- 이성희, 박경애 (2021). 가정 내 학대경험이 중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우울·불안과 인터넷 중독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47-72.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47>
- 이연규, 김가은 (2019).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통합적 고찰.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6(1), 81-92.
<https://doi.org/10.14367/kjhep.2019.36.1.81>
- 이연섭 (1984). 아동학대의 심리학적 고찰.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1, 103-117.
- 이용주 (2020). 어린이집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4(2), 149-169.
<https://doi.org/10.32349/ecerr.2020.4.24.2.149>
- 이유석, 서구원 (2019). 아동학대 예방 공익 광고의 메시지 프레이밍이 수용자 인식과 예방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7(4), 141-150.
<https://doi.org/10.18852/bdak.2019.17.4.141>
- 이재연, 윤선화 (2004).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탐색. 아동권리연구, 8(2), 237-252.
- 이정현, 이영희 (2007).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표현연구. 디자인여성학회지, 3(1), 81-95.
- 이주희, 이선화 (2020).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경험에 관한 현상학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2), 5-32.
- 이호균, 장화정, 유선영 (2001). 아동학대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아동·부모·교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아동힘키우기서비스(CES: Child Empowering Service)를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5(1), 23-33.
- 정옥분, 정순화, 손화희, 김경은 (2020). 아동권리와 복지. 서울: 학지사.
- 정윤수, 이정희 (2003).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2(3), 227-263.
- 정은미 (2007).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의 사례 관리에 관한 비교연구 -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을 중심으로 -. 조선대 사회과학연구, 28(1), 53-77.
- 정채옥 (2007). 한국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거시적 방안 연구. ACTS 신학과 선교, 10, 217-263.
- 조영숙 (2015). 장애아동 학대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장애아동인권연구, 6(2), 1-14.
- 조영숙 (2016). 장애아동의 학대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아동인권연구, 7(1), 61-73.
- 조영숙, 이현수 (2011). 장애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한국위기관리논집, 7(6), 215-228.
- 차미숙, 김광웅 (2017). 아동학대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부모교육연구, 9(1), 41-64.
- 천희영 (1989).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진주여자전문대학논문집, 11, 329-352.

- 최정학 (2014).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 아동 성범죄의 사례 -. *민주법학*, 54, 211-242.
<https://doi.org/10.15756/dls.2014..54.211>
- 추경진, 최종옥 (2015).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과 청소년기 자살생각 간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과 우울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22(4), 83-103.
<https://doi.org/10.15284/kjhd.2015.22.4.83>
- 표갑수 (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 156-177.
- 홍문기, 박혜영 (2018). 아동학대 예방 PR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아동학대 척도 개발 연구. *홍보학연구*, 22(5), 30-69.
<https://doi.org/10.15814/jpr.2018.22.5.30>
- 홍세은, 정지수 (2019).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이 테이트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와 충동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형사정책연구*, 30(4), 69-104.
<https://doi.org/10.36889/kcr.2019.12.31.4.69>
- Admon Livny, K., & Katz, C. (2018). Schools, families, and the prevention of child maltreatment: Lessons that can be learned from a literature review. *Trauma, Violence, & Abuse*, 19(2), 148-158.
<https://doi.org/10.1177/1524838016650186>
- Cherry, R., & Wang, C. (2016). The link between male employment and child maltreatment in the U.S., 2000-2012.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6, 117-122.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6.05.008>
- Cohn Donnelly, A. H. (1991). What we have learned about prevention: What we should do about it. *Child Abuse and Neglect*, 15(1), 99-106.
[https://doi.org/10.1016/0145-2134\(91\)90013-4](https://doi.org/10.1016/0145-2134(91)90013-4)
- Drake, B., & Pandey, S. (1996).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poverty and specific types of child maltreatment. *Child Abuse & Neglect*, 20(11), 1003-1018.
[https://doi.org/10.1016/0145-2134\(96\)00091-9](https://doi.org/10.1016/0145-2134(96)00091-9)
- Fong, K. (2017). Child welfare involvement and contexts of poverty: The role of parental adversitie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72, 5-13.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6.10.011>
- Hein, T. C., & Monk, C. S. (2017). Research review: Neural response to threat in children, adolescents, and adults after child maltreatment-A quantitative meta analysi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8(3), 22-230. <https://doi.org/10.1111/jcpp.12651>
- Hershkowitz, I., Lamb, M. E., & Horowitz, D. (2007). Victimiz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4) 629-635.
<https://doi.org/10.1037/0002-9432.77.4.629>
- Jones, E. D., & McCurdy, K. (1992). The links between types of maltreatment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16(2), 201-215.
[https://doi.org/10.1016/0145-2134\(92\)90028-p](https://doi.org/10.1016/0145-2134(92)90028-p)
- Malinosky-Rummell, R., & Hansen, D. J. (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1), 68-79.
<https://doi.org/10.1037/e500372006-004>
- Okun, A., Parker, J. G., & Levendosky, A. A.

- (1994). Distinct and interactive contributions of physical abuse,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hildren'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77-98.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897>
- Ryan, G. (2005). Preventing violence and trauma in the next gener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1), 132-141.
<https://doi.org/10.1177/0886260504268605>
- Schmeck, K. (2020). Long-term consequences of early neglect and abuse. *Psychiatria Danubina*, 32(3), 343-345.
- Slack, K. S., Holl, J. L., McDaniel, M., Yoo, J., & Bolger, K. (2004). Understanding the risks of child neglect: An exploration of poverty and parenting characteristics. *Child Maltreatment*, 9(4), 395-408.
<https://doi.org/10.1177/1077559504269193>
- Stewart, A., Livingston, M., & Dennison, S. (2008). Transitions and turning points: Examining the link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juvenile offending. *Child Abuse & Neglect*, 32(1), 51-66.
<https://doi.org/10.1016/j.chiabu.2007.04.011>
- Teicher, M. H., & Samson, J. A. (2016). Annual research review: Enduring neurobiological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7(3), 241-266. <https://doi.org/10.1111/jcpp.12507>
- Turner, H. A., Finkelhor, D., & Ormrod, R. (2007). Family structure variations in patterns and predictors of child victimiz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82-295.
<https://doi.org/10.1037/0002-9432.77.2.282>

1 차원고접수 : 2021. 07. 08.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3.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Research Trends in Prevention of Child Abuse: Published Articles in South Korea

Park, Sungmin¹⁾

Kim, Mee Jean²⁾

Lim, Jung-ha³⁾

¹⁾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²⁾MJ Multicultural Child & Family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³⁾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rends in the previous literature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in South Korea. A literature search was performed in two databases pro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and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Ninety-six published articles meeting the inclusion criteria were analyzed. A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to evaluate trends in the year of publications, methodology, and contents. Majo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articles on the prevention of child abuse were most frequently published in the late 2010s. Many studies were conducted in social science and convergenc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at a similar rate, and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mainly as quantitative cross-sectional studies. Most of the studies collected data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Additionally, the number of studies targeting adults including mandatory reporters and parents was higher than those targeting children. The most popular research issues were laws, policies and institutions, and child abuse prevention programs. Suggestions are provided as future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ld abuse prevention.

Keywords: child abuse, prevention of child abuse, research trends, published articles